

몸짓의 향연... 초여름 흘리다



〈광주 현대무용단〉

광주 무용제 내일 광주문예회관...4개팀 경연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제20회 전국무용제에서 광주로알발레단은 대통령상과 남녀 연기상, 무대미술상 등을 휩쓸며 광주 무용의 저력을 알렸다. 광주가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은 모두 6차례. 발레·현대무용·한국무용을 모두 아우르며 수상했다.

올해 전국무용제에 참가할 광주 대표팀을 뽑는 제21회 광주무용제 오는 3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광주무용협회(회장 김미숙)가 주최하는 이번 무용제에는 모두 4팀이 참여, 경연을 벌인다.

김미숙 부회장은 "이번 무용제에 참가할 광주 대표팀을 뽑는 제21회 광주무용제 오는 3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광주무용협회(회장 김미숙)가 주최하는 이번 무용제에는 모두 4팀이 참여, 경연을 벌인다.

김미숙 부회장은 "이번 무용제에 참가할 광주 대표팀을 뽑는 제21회 광주무용제 오는 3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광주무용협회(회장 김미숙)가 주최하는 이번 무용제에는 모두 4팀이 참여, 경연을 벌인다.

김미숙 부회장은 "이번 무용제에 참가할 광주 대표팀을 뽑는 제21회 광주무용제 오는 3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광주무용협회(회장 김미숙)가 주최하는 이번 무용제에는 모두 4팀이 참여, 경연을 벌인다.

김미숙 부회장은 "이번 무용제에 참가할 광주 대표팀을 뽑는 제21회 광주무용제 오는 3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다른 시작을 꿈꾸는 이들의 이야기를 한국적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으로 김보라·나유정·문지선씨 등이 출연한다.

정정은무용단은 광주시립무용단 주역으로 활동 중인 정정은씨가 안무한 'Addiction'을 공연한다.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풀어낸 작품이다. '후회', '눈물' '집착' 모두 3장으로 구성된 작품에서는 아름다움이라는 신기루에 취해 끊임 없이 수술대에 오르는 여성을 통해 욕망의 덧없음을 이야기한다.

출연진은 정정은·송관석·최근호·이무환씨 등이다.

유길호무용단의 'Collabotation'은 서로 다른 것들의 결합을 통해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유길호무용단의 'Collabotation'은 서로 다른 것들의 결합을 통해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유길호무용단의 'Collabotation'은 서로 다른 것들의 결합을 통해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유길호무용단의 'Collabotation'은 서로 다른 것들의 결합을 통해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유길호무용단의 'Collabotation'은 서로 다른 것들의 결합을 통해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유길호무용단의 'Collabotation'은 서로 다른 것들의 결합을 통해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광주현대무용단의 참가작은 '자메뷰(Jamais Vu)'. 작품 제목 '자메뷰'는 익숙한 대상이나 장소를 처음 겪는 것처럼 느끼는 현상을 말한다. 낯설음과 익숙함의 반복되는 관계 속에서 인간들의 고뇌를 그린 작품으로 마임도 등장한다.

전국무용제에서 연기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김미선씨가 안무했으며 김씨를 비롯해 한은정·박은진·추지영·윤석영씨 등이 출연한다.

김미선씨가 안무했으며 김씨를 비롯해 한은정·박은진·추지영·윤석영씨 등이 출연한다.

김미선씨가 안무했으며 김씨를 비롯해 한은정·박은진·추지영·윤석영씨 등이 출연한다.

김미선씨가 안무했으며 김씨를 비롯해 한은정·박은진·추지영·윤석영씨 등이 출연한다.

김미선씨가 안무했으며 김씨를 비롯해 한은정·박은진·추지영·윤석영씨 등이 출연한다.

김미선씨가 안무했으며 김씨를 비롯해 한은정·박은진·추지영·윤석영씨 등이 출연한다.

김미선씨가 안무했으며 김씨를 비롯해 한은정·박은진·추지영·윤석영씨 등이 출연한다.

김미선씨가 안무했으며 김씨를 비롯해 한은정·박은진·추지영·윤석영씨 등이 출연한다.

김미선씨가 안무했으며 김씨를 비롯해 한은정·박은진·추지영·윤석영씨 등이 출연한다.



조기영 '도미&아랑'

그린발레단 내일 광산문예회관 '차세대 작가전'

젊은 무용가들의 참신한 무대가 마련된다.

그린발레단(예술감독 박경숙)은 30일 오후 5시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빛의 정원에서 춤추다'라는 주제로 '트리니티 차세대 작가전'을 마련했다.

조기영·송성호·벨릭페 노르보예프 등 신진하고 젊은 감각에 실험정신을 갖춘 3명의 젊은 안무자들의 역량을 엿볼 수 있는 무대다.

광주여대 외래교사인 조기영씨는 '도미&아랑'의 안무를 맡아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현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사상 중 하나인 남녀 간의 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무대에 올린다.

송성호씨는 '마스크'로 인간 마음 속에 잠겨있는 야누스적 생각과 성격을 춤으로 표현한다.

광주여대 외래교사인 벨릭페 노르보예프는 포르투갈의 무곡인 '라 폴리아'의 음악이 주는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출한다.

발레와 음악의 앙상블이 불거린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무의식, 어디서부터 오는가

김자이 개인전 내달 5일까지 금호갤러리

김자이씨가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금호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개인전은 '2012 금호갤러리 영아티스트 전시 공모'에서 선정된 데 따라 이뤄진 초대전으로 '무의식, 존재의 결여'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무의식의 세계가 LED 설치 작품과 영상, 판화, 드로잉 등 다양한 장르로 선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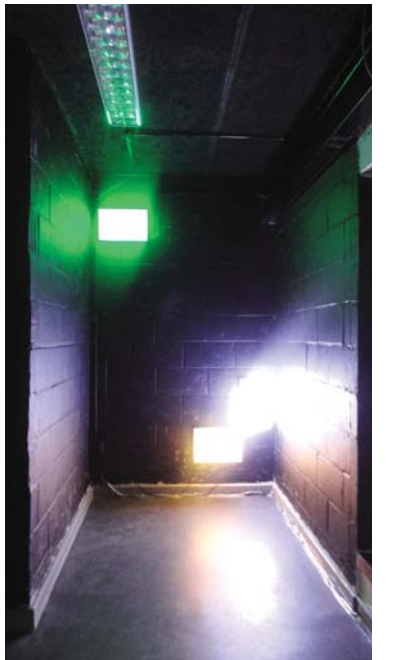
전시된 작품에는 작가 자신의 무의

식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각자의 무의식이 행동, 꿈, 말 등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관객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무의식의 세계를 알아보기 위해 스스로의 행동과 말을 기록하고 그 패턴을 찾아보려 한 작가의 노력과 연구 과정 등이 전시 작품에 담겨 있다.

문의 062-360-8436.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물·꽃·바람...치유의 자연

박홍수 개인전 내달 3일부터 여미아트홀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내 여미아트홀이 갤러리를 오픈하고 개관 기념전을 갖는다.

여미아트홀은 다음달 3일부터 8월 16일까지 한국화가 박홍수씨의 개인전을 연다.

여미아트홀은 병원 내 위치한 점을 감안, 현대인의 화두인 '치유'의 답문을 적극적으로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意境-소리(散調)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소리를 시각적 언어로 표현해온 박씨의 작품 30여점이 선을 보인다.

자연주의사상에 뿌리를 두고 자연의 생명체(生命體)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조형언어로 나타난 작품을 통해 작가의 오랜 창작 역량을 엿볼 수 있는 기회다.

또 물, 바람, 꽃, 구름, 풀, 하늘, 바다 등 자연의 소리를 생명력 있게 표현해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작가의 의도도 엿볼 수 있다.

박씨는 조선대 미술대학과 회화과를 나온 뒤 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거쳐 광주, 서울, 대구, 일본 등지에서 17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意境-소리(散調)'

미대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문의 010-3601-2909.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문화통 & Asia' 여름호 나왔다

'광주 양복점·양장점의 역사' 특집 다뤄

인터넷신문 문화통(대표 지형원)이 발행하는 문화전문 주간지 '문화통 & Asia' 여름호가 나왔다.

특집 기사는 '광주 양복점·양장점의 역사'다. 기사에는 1920년대 일본인 와다나베가 총장로 1가 조선대 동창회관 자리에 문을 연 '와다나베 양복점'이 최초 양복점으로, 양장점은 1955년 총장로 2가에 이진모씨가 연 모나미 양장점을 최초로 꼽았다.

권두인터뷰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인 김중률 단장을 만났고 가야금 병창의 대를 이어 떠오른 이정애씨와의 만남을 차세대 스타로 다뤘다.

전라도문화수계는 별교 흥교 300년 비결을 살렸고 한국화가 정광



주년을, '지리산 둘레길 274km 열리다' 등을 담았다. 또 수도권에서 광주로 옮겨 갤러리를 오픈한 장상열 대표와의 인터뷰, 광현수 고흥남포미술관장과의 만남도 소개하고 있다. 문의 062-226-1000.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아프니까...' 中 돌풍

누적 판매 20만부 돌파

김난도 서울대 교수의 책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중국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출판사 썬앤파커스는 지난 2월 '아프니까 청춘이다' 중국어판이 2주 만에 현지 최대 규모의 서점인 당당닷컴(www.dangdang.com) 종합 베스트셀러 5위에 올랐다고 27일 밝혔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중국 아마존(www.amazon.cn)에서도 지난달 말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5주째 정상을 지켰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8개국에 진출했으며, 저자인 김난도 교수가 오는 9월 토리노 국제도서전에 초청받은 것을 계기로 이탈리아에도 소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창업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 봉사 OFF SALE



기간: 2012년 3월 15일~8월 31일
독일보청기 정품만 사용합니다.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축적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Be natural Be delicious

주류서비스
-성인1인당, 평일방문 고객께-
[맥주 or 소주 1병] 택1
[와인 or 생맥주 1잔]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유스퀘어 사우나

24시간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